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지적설계 (2) 제1장 - 발표 김경찬, 정리 이종헌 | 2쪽 |
| 2. The BIBLE COMES ALIVE (17)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 9쪽 |
| 3. IMPACT (5) 공통 열풍과 아이들 - 이종헌 감수 | 13쪽 |
| 4. 창조단상 (18) 성경은 윤석을 언급하고 있는가? - 박종환 | 17쪽 |

인사말

때로는 현실의 삶을 떠나서 멀리 여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일상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로의 여행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은 자동차나 비행기 없이도 어디든 순간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티켓을 받아놓고 그곳으로의 여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라나타!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4년 5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은 5월 20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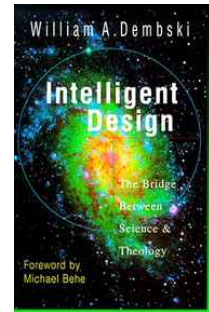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4장 (5월 20일(목)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5장)

발표: 이종헌 (지적설계 5장 발표: 전창진)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제1장 하나님의 손가락 (Recognizing the Divine Finger)

1.1 호머 심슨의 기도(Homer Simpson's Prayer)

- 호머 심슨의 기도 - TV 만화 시리즈 '심슨 가족' 중

• 기도 내용 =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게 잘 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현재 매우 완벽합니다. 이제 저와 거래를 합시다. 만일 당신께서 모든 것을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께 아무 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게 아무런 표적도 주지 마십시오. [잠시 후] 좋아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께 과자와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것을 먹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아무런 표적도 주지 마십시오. [잠시 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 용어의 정의 : 기적(miracle)=먼저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적(wonder); 표적(sign)=무엇인가를 제시하신 후 보여주시는 것,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적

- 호머의 기도에서 잘못된 점

-호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다.

-호머는 모든 표적을 합리화하고 있다. 표적이 없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호머는 표적이 없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표적을 특정화하는 데 실패했다.

- 표적의 성립 조건

- 인간의 의사결정을 인도하는 면에서의 표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

① 표적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표적이 특정될 때만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합리화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표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표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분명하지 않다.

② 표적은 반드시 예외적인(확률적으로 작은) 것이어야 한다.

-표적이 기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적인 사건과는 달라야 한다.

③ 표적은 분명하게 어떤 결정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④ 표적은 불확정적(contingent)이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표적을 찾는 것은 지적인 행위자를 찾는 것이다.

1.2 의사결정에서의 표적(Signs in Decision-Making)

• 용어의 정의

• **표적 추구자**(sign-seeker) = 표적을 찾는 사람 / **표적 제공자**(sign-giver) = 표적을 일으키는 행위자

• 표적과 결정

• 표적 추구자는 표적을 특정화한 후에, 그 표적을 하나의 결정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 **검사조건문**(test-conditional) : 『만일 그 표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결정할 것이다.』

• 표적이 특정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결정 또한 특정되어야만 한다.

• 표적과 결정이 모호하거나(Fuzzy) 분명한(Clear) 검사조건문의 예

① FF: 『만일 그녀가 나의 구애를 거부한다면, 나는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 표적과 결정이 둘 다 모호

② FC: 『만일 그녀가 나의 구애를 거부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 → 전제의 모호함은 결론의 분명함을 파괴시킨다.

③ CF: 『만일 오늘밤에 그녀가 나의 가벼운 접촉을 거절한다면, 나는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 결론의 모호함은 전제의 분명함을 파괴시킨다.

④ CC: 『만일 오늘밤에 그녀가 나의 가벼운 접촉을 거절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 → (전제와 결론이 분명할 때만) 의사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안내자가 된다.

• 표적 제공자가 표적 주기를 거부한다면?

• (예) 중세의 관행인 시죄법(試罪法) :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그 상처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낫는다면 무죄로 판결했다.(검사조건문 = 『만일 상처가 치료된다면 무죄로 간주한다.』)

• 그러나 하나님이 표적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유죄인가? 아니다. → 표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침묵으로 해석해야지 어떤 행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행위자이시고,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행동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 표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비대칭성

• 표적 제공자가 요청된 표적을 제공한다면 → 표적 추구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표적 제공자가 그 결정을 승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 기드온의 검사조건문 = 『만일 하나님이 이를 동안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을 한 번은 젖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마르게 하신다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 →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심

• 표적 제공자가 요청된 표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 표적 추구자는 결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접패를 보는 도구)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삼상 28:6)』 → 하나님의 침묵은 사울의 지속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 종종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침묵하시도록 만든다. 성경은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행하시도록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찾는 행위를 모두 거부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 기드온이 구했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 표적을 사용하는 것은 완벽하게 유효한 표적의 용도라고 제시하고 있다.

1.3 일상적인 표적 대 예외적인 표적(Ordinary Versus Extraordinary Signs)

• 표적의 두 가지 성질

① 표적과 결정 두 가지 모두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 둘은 『만일 표적이 있다면 결정을 한다.』와 같은 형태의 검사조건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② 표적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의사 결정을 인도하는 표적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 표적 추구자는 자신의 자원이 부족하고 부적절함을 알기 때문에 인도를 구하게 된다.
- 표적이 필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것은 직접적인 지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인도해야만 한다.
- 표적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어떤 결정에 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표적을 찾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정을 표적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 ※ 표적이 예외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표적 추구자가 중간 매체 없이는 표적 제공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일상적인 표적들은 쉽게 위조되기 때문에, 오직 예외적인 표적만이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그래서 표적 추구자는 자신의 결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예외적인 표적을 찾는다. 그러므로 표적이 어떤 결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려면 그 표적은 먼저 예외적이어야만 한다.

• 표적을 통해서 결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

- 표적 추구자가 어떤 결정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적 제공자에게서 오는 표적을 찾는다.
- 그래서 표적 추구자는 표적과 결정을 특정화 한 후에 그 두 가지를 다음의 검사조건문으로 연결한다. 『만일 표적이 있다면 결정을 한다.』
- 표적이 표적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표적 추구자는 예외적인 표적, 표적 제공자에게 유일하게 특정되어 있는 표적을 특정화 한다.
- 그 표적이 일어난다면 표적 추구자는 표적 제공자가 실제로 표적 추구자의 결정을 허락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표적 추구자는 이것을 표적 제공자가 침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결정에 도달할 만한 아무런 기반도 갖지 못한다.

1.4 모세와 바로(Moses and Pharaoh)

• 모세의 신뢰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할 지를 걱정한다.

•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세에게 몇 가지 표적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 표적들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것과, 모세의 손을 정상인의 손에서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 바꾸는 것, 마지막으로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다. → 그런 표적의 중요한 점은, 그런 표적들이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의 사용이 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 바로에게 보인 하나님의 표적

•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문제

•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표적은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은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의 세 가지 표적(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 물을 피로 바꾸는 것, 땅 위에 개구리들이 들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

• 그 다음 이의 재앙은 바로의 술객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 → 이에 대한 술객들의 해석 =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으리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finger of God, KJV)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출 8:18-19)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가락’(finger of God)을 인식하는가?

•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표적은 **예외적**이어야만 한다.

•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외성이 필요한가 = 우리가 기꺼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나에 달려있다.

• 애굽의 재앙

• 애굽의 재앙들은 예고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재앙들은 먼저 특정되었다. 모세가 그런 표적을 통해서 바로가 도달하기를 원했던 결정 또한 분명하게 특정되었다.

• 열 가지 검사조건문 : (1)만일 강이 피로 변하면, (2)만일 개구리가 애굽을 덮친다면, (3)만일 이가 애굽을 덮친다면, (4)만일 파리가 애굽을 덮친다면, (5)만일 악질이 애굽을 덮친다면, (6)만일 독종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7)만일 우박이 애굽을 황폐하게 만든다면, (8)만일 메뚜기가 애굽을 덮친다면, (9)만일 흑암이 애굽에 사흘 동안 덮친다면, (10)만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면 →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 결국 표적은 작용했지만, 바로가 검사조건문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너무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1.5 블레셋인들과 언약궤(The Philistines and the Ark)

- 배경 /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다. 승리를 원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왔다.
-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다.
- 언약궤를 가져온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 첫째 밤이 지나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두 번째 밤이 지나자 다곤 신상이 절단되어 있었다. 아스돗 사람들은 독종으로 고통받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들도 독종에 시달린다.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표적을 특정 지었다.
- 블레셋 사람들이 특정 지은 표적
 - (삼상 6:7-9)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떼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떼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벰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 표적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존재한다.
 - 표적 추구자=블레셋 사람들; 표적 제공자=이스라엘의 하나님; 특정된 표적=소가 벰세메스로 가는 것
 - 특정된 결정 =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
 - 검사 조건문 = 『만일 두 마리의 암소가 끌고 가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영토인 벰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 이 표적은 실제로 예외적이다. : 암소에게는 갓 태어난 새끼가 있는데, 암소의 자연적인 성향은 새끼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 암소가 자기 새끼를 떠나서 벰세메스를 향해 가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른 요소들이 암소들을 벰세메스로 가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
 - 우리가 표적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바는 표적이 유일하게 특정 짓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유일한 특정성이 아니라 예외성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성의 정도가 증가하면 검사조건문에서의 우리의 확신 또한 증가한다.

1.6 부활의 표적(The Sign of the Resurrection)

- 표적으로서의 부활
-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기도 하고 표적이기도 하다. (기적의 문제는 2장에서 다룸)

- 기적은 놀라움을 일으키는 반면, 표적은 확신을 만들어 낸다.
- (막 10:32-34)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 (요 14:28-29)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①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을 표적으로서 분명하게 특정하셨다.
- ② 예수님은 이 표적이 한 가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실증하기를 원하셨다.
- 실증할 필요가 없는 가르침 = (예) 황금률 ←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이 필요 없다.
-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 가르침 : (1)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2)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 표적이 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한다.

• 예수님의 부활

-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체가 회복됨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이 되었다.
-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관찰의 문제다.
- 검사조건문 = 『만일 내가 부활하면 내가 죽음을 이긴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 이 검사조건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 예수님의 부활은 예외적인 표적이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죽음에 대한 정복과 연결시키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무덤이 비었음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그분의 부활을 확인했다. 부활이 기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는 점이다.

1.7 프리모더니티에 대한 변론(In Defense of Premodernity)

• 모더니티

-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세상은 인과관계의 닫힌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세상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다. 기껏해야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존재의 기반이 되거나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
-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모든 행동을 부정한다. → 표적 제공자가 언제나 침묵한다고 주장.
- 문제점 : 신적인 활동이 언제나 자연법칙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적인 활동이 세상의 인과적인 구조에 대한 부당한 침입일 수밖에 없다.

- **포스트모더니티 / 모더니티에 대한 반작용** : 과학과 기술을 통한 희망을 포기
-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특정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집단 안에서만 구하도록 제한한다. → 표적 제공자는 시대에 뒤진 개념이며, 모든 표적은 표적 추구자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 **프리모더니티 /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와 더불어 과학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
- 신적인 작인(divine agency)과 조화를 이루기에 충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특히 표적 제공자로 활동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자연법칙에 의해 표현되는 자연적인 원인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지적인 원인 또한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
- 지적인 원인에 대한 표현 : 아리스토텔레스(목적인; final cause), 어거스틴(자발적인 원인), 모세스 마이모니데스(지적인 원인), 찰스 핫지(정신적 원인), 오스틴 파러(의도적인 원인)
- 자연적인 원인과 지적인 원인이 함께 작동하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 자연법칙이 배경을 이루고 지적인 원인이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 무대이다.

• 이 책의 목적(지적설계)

- 자연적인 원인과 지적인 원인이 과학이나 신학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 프리모던적 표적의 논리를 취해서 엄밀하게 다듬는 것 → 지적설계 운동
 - 지적설계 = 지적인 원인, 특히 지적인 원인이 남겨놓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지적설계는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즉, 표적들)로부터 그런 특징을 만들어 낸 지적인 원인을 추론한다.
- 세상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 사건과 객체와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 과학은 지적인 원인을 엄밀하게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 지적설계는 어떤 결과가 **복잡**하고 **특정**되어 있다면 그 결과가 지적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정.
- 사람들은 목적이 있고 미리 계획된 지적인 행위자의 활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런 사건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지적설계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의 논리를 풀어내어 특정 과학에 적용시킨다.
- 지적설계는 프리모던적인 표적의 논리를 취해서 그것에 힘을 실어준다. **참조**

세돔(소돔)의 사해 화학 공장들



사해 화학 공장들

이 공장들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광대한 광물 자원이 사해에서 매년 발견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이 지역에 소금 광산이 있지만, 많은 양의 다른 광물 자원도 함께 있다. 사실상, 사해 화학 공장들이 발견하는 재물들은 이스라엘의 수출무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잠재력이 매우 커서, 이런 특이한 보물 하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이런 종류의 재물을 갖고 있는 지표면이 다른 곳에는 없다.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는 그 잠재력을 실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의 수년 동안은 대규모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드로리 쉘로모/Drori Shlomo 교수

쉘로모 교수는 이스라엘의 수출무역에 대해 사해바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권위자 중의 하나이다. 그의 강의는 권위가 있으며, 활기 있고, 대단히 흥미롭다. 그는 사해의 남쪽 부분이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富)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그 지역의 지질학과 일반 지형학에 대해서도 권위자이다. 그는 사해의 물의 양이 매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인상적인 도표를 가지고 있다.



드로리 쉘로모 교수

쉘로모 교수가 사해의 방대한 부(富)와,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사해의 중요성과, 지질학적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지식과 통찰력은 놀랄 만하다.

사해 전체는 길이가 약 40마일이고, 폭이 10마일 정도이다. 사해에 대량의 소금 침전물이 쌓이는 것은 지하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마그마와 물 때문이다. 그것은 화산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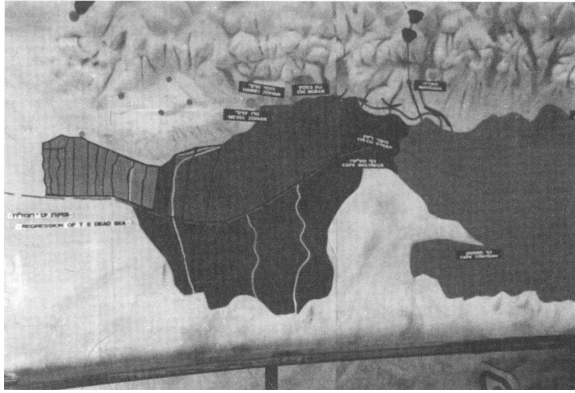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화산폭발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의 자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설명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사해에 있는 물의 양에 관한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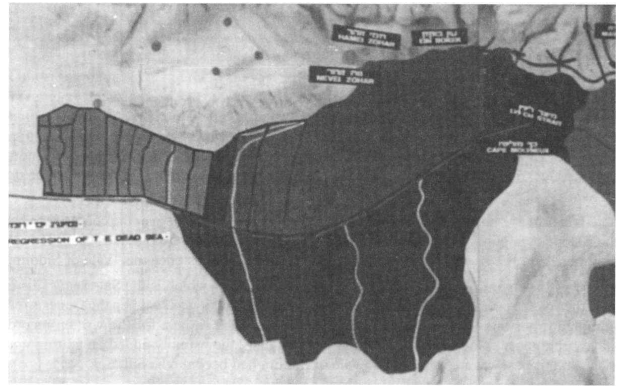
사해의 남쪽 부분은 그 기원이 비교적 최근이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지중해 수면 아래로 1,300피트 정도나 내려간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 아래로 630 피트이며,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로 흐른다.

사해는 흡수율이 상당히 크지만, 수백 년 가지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해의 남쪽에는 그러한 배출구가 없어서, 수백 년 동안 흘러 들어온 물이 한때는 “싯딤 골짜기”였던 곳을 점차로 채우고 있다.

창세기 14:3에서 싯딤 골짜기를 지금의 염해/Salt Sea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해의 남쪽 부분이 한때는 계곡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며, 창세기의 관련 기록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그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록된 글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별난 관점을 갖고 있다. 대체로, 그들은 적절한 곳에 편집 노트를 첨가한다. 이 경우에는 싯딤 골짜기가 염해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해의 남쪽 부분이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쉴로모 교수가 놀라운 제시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 곳이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었다(창 14:3을 보라).



심지어 20년 전에도 사해의 남쪽 부분이 완전히 덮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농업 및 기타 목적으로 요단강 물을 이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사해에 있는 물의 양에 관한 확대 도표

앞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도표는 위 그림을 확대한 것이다. 사해의 북쪽 부분은 깊이가 1,300 피트 정도 되는데, 남쪽 부분은 약 15피트인 것을 알 수 있다. 남쪽 부분은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로 채워져 왔는데, 한때는 사해의 북쪽에만 물이 있었다가, 그것이 리산/Lisan(‘혀’)이라는 곳으로 뺏겼으며, 그 두 부분이 분명하게 나뉘어 진 것을 볼 수 있고 지금은 대략 가운데에서 분할된다.

최근에는 또한, 요르단과 이스라엘 모두 농업용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해의 북쪽에 있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해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남쪽 부분이 감소한다.

한 세대 전에 W. F. Albright 와 같은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의 남쪽 부분 아래에 묻혀있다는 글을 썼다. 오늘날 그런 관점이 또다시 쉴로모 교수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지역의 미래는 여러 방면에서 두드러진다. 후퇴의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고대의 폐허라든가 아니면 이전의 농업에 관한 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떤 점에서는 미래의 발견물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데까지 우리 마음을 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돔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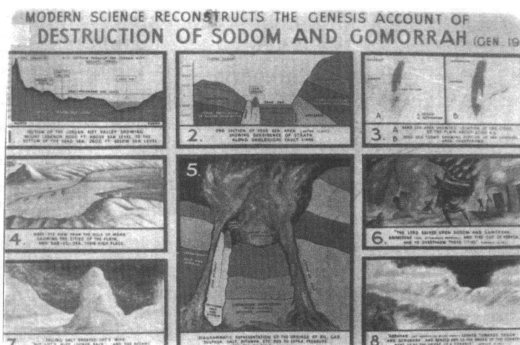
1957년에 Walter J. Beasley(호주 고고학 연구소의 창시자겸 소장)가 *소돔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The Amazing Story of Sodom*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세푸스/Josephus나 스트라보/Strabo와 같은 초기의 저자들은 그들이 살던 때에는 평원의 도시가 전복된 폐허를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해의 남쪽 부분에 있는 물이 이 지역을 덮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볼 수 없다고 카일/Kyle 교수가 지적한다. 이 바다의 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일 교수는, 로마의 길

한때 리산/Lisan의 남쪽 부분을 통과했다고 지적한다(지도를 보라). 이 길의 남은 부분을 바다의 서쪽에 위치한 육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때 계곡을 통과하던 길이 로마시대부터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 그림으로 요약한 상황 때문에 1957년부터 입장이 상당히 변했다. 더 이상 사해가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1957년 도표의 설명, 사해의 아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주장



주 : 이 도표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의 남쪽 부분 땅 아래에 있었다고 가정한다. 앞서 보았듯이, 일부 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한 다른 가능성은 “평원의 도시”가 실제로 사해의 동쪽(요르단)에 있었다는 것이다. 도시의 윤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밝혀져야 할 것이다.

1957년에 파멸의 가능성을 새로 조사했다. 그림 8은, 중간에 산맥이 가로막혀서 아브라함이 불을 못보고 연기만 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표 1 - 요르단 지구(地溝)/Rift Valley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수면으로부터 6,000 피트 높이의 레바논 산으로부터 수면 아래 2,600 피트의 사해 바닥까지 나타내고 있다.

도표 2 - 사해 지역의 끝(end)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질학적 단층선을 따라 지층의 함몰이 보인다.

도표 3 - (A) BC 2000년경의 사해 지역으로서 평원의 도시 위치가 나타나 있고, (B) 1950년대의 사해로서, 바다의 부분이 도시를 덮고 있다. 사해의 양쪽에서 로마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도표 4 - 재조사를 할 때 Bab-edh-Dra가 높은 위치라서 매년 방문했다. (이는, 지속적인 침하가 있으며 대부분이 땅 속에 묻힌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도표 5 - 침몰된 유전에서 큰 압력 때문에 기름, 가스, 유황, 소금, 역청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준다.

도표 6 -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유황과 역청질 재료)과 불을 퍼부었으며, 그분이 그 도시들을 뒤엎으셨다(창 19:24-15).

도표 7 - 떨어지는 소금이 롯의 아내를 둘러싼다. 그녀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창 19:26).

도표 8 -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창 19:28). 아브라함은 산맥이 가로막혀서 불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연기가 웅기점/furnace(강한 압력을 의미한다)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 이것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명쾌하게 기록한 것이다.

참조



공룡 열풍과 아이들 (Dinosaur Mania and Our Children)

최근에 가장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공룡이다. 공룡은 아이들을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공룡이 복구된 이래로, 공룡은 커다란 사업이 되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cereal)에서 가솔린에 이르는 모든 것에 공룡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공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공룡과 관련 상품에 대한 새로운 대유행은 미국과 기타 서구 나라들을 휩쓸고 있다.

요즈음, 아이들이 가는 곳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 급식용 우유 통에서조차 공룡을 보게 된다. 게다가, 이 동물은 어른들에게도 그만큼 인기가 있다. 최신 유행을 따르는 많은 상품은 ‘여피’ 세대의 흥미를 끌고 있다. 공룡 멸종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화석 발견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주요 전국 잡지에 대서특필된다. 그리고, 매년 성인 수준의 새로운 공룡책자들이 꾸준한 추세로 일본주의적 출판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행된다. 심지어 어른들도 그들 주변의 역사 및 논쟁과 마찬가지로 이 커다란 짐승에 열을 빼앗긴다.

무엇이 이 모든 흥미를 유발했는가? (WHAT SPARKED ALL THIS INTEREST?)

이러한 열광의 일부는 명백히 현재 미국을 순회하는 첨단 기술의 공룡전시회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심지어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호텔에 나타난 이 커다란 공룡들이(1/2 크기) 실제로 움직이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있는(animated)’ 공룡은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몇몇 박물관의 경우 관람객수의 기록을 깨뜨렸다.

또한 현재 공룡에 대한 대유행은 확실히 (1) 극적인 새로운 화석 발견과 (2) 가장 최신의 멸종 이론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미디어의 주목, 그리고 (3) (현재 북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박물관 극장에서 상영된 IMAX 영화와 PBS-TV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커다란 익룡 케찰코틀루스(*Quetzalcoatlus northropi*)의 18피트짜리 복제품을 날도록 만든 기계장치가 건조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공룡 열광이 왜 위험한가? (WHERE IS THE DANGER IN THIS DINOSAUR-MANIA?)

공룡은 진화론을 조장하는데 터무니없는 규모로 이용되고 있다. 부모들은 종종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공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 놀란다. 이상하고, 무섭게 생긴 동물로 표현되어서, 그것들은 수백만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잘못된 진화론적 개념을 주입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공룡과 다른 많은 동물들은 선사시대에 있었다. 대부분의 지구 역사는 성경이나 다른 책이 쓰여지기 오래 전에,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기 오래 전에 일어났다.

1. 지구는 대단히 오래된, 약 50억 년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2. 진화는 사실이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옛날 옛날에 땅에 파충류만 거주했던 때-공룡의 전성기-가 있었다.
3. 공룡과 다른 동물들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동물로 진화했다. 모든 생물은, 심지어 사람도 하등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했다. 인간은 단지 고도로 진화된 영장류일 뿐이다.

공립학교와 공룡 (PUBLIC SCHOOLS AND DINOSAURS)

공립학교 교사들은 대개 학습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룡을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문구점도 보통은 그러한 공급품을 잘 갖추고 있어서,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와 읽기, 그리고 산수와 역사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룡은 진화론적 개념과 관계가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진화론적 세뇌는 철저하며 종종 보강적이다. 수년간 세뇌되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확립된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공룡을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진화-몇 시간의 PBS-TV, 멋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특집과 진화론적 책과 기사로 집에서 효과적으로 재강조된 생각-라는 이미지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한다.

더 많은 속임수가 진행 중이다 (MORE DECEPTION IS ON THE WAY)

창조론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선도적인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심지어 입학 전 단계에서 시작해서, 각급 학교에서 진화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종사한다.

공룡을 사용해서 창조에 대해 가르치기 (USING DINOSAURS TO TEACH ABOUT CREATION)

현재 공룡에 대한 열광은 엄청나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룡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적 해석의 편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적 역사 틀에서 공룡을 제시하면서도, 진정한 과학의 특성을 유지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공룡에 대한 사실을 제시한다.

공룡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성경을 제외하면, 공룡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화석-죽은 동식물이 암석으로 바뀐 것-에서 얻는다. 공룡화석의 예로는 뼈, 이빨, 발톱, 돌출부(spikes), 뿔, 골판(bony plates), (때때로 태어나지 않은 새끼가 들어있는) 알, 위장의 돌(위석, gastroliths), 변(분석, coprolites), 발자국, 피부의 인상(매우 드물다), 그리고 위속의 내용물(매우 드물다)이 포함된다. 화석은 퍼즐 맞추기의 조각과 같다. 실제로 살아있는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룡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 때문에, 공룡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다.

좋은 예로, 아마도 공룡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커다란 브론토사우루스(Brontosaurus)가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공룡을 책과 광고에서 봤다. 하지만, 브론토사우루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화석은 머리가 없는 채 발견되었다. 골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3-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두개골을 붙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밝히진 않았다. 최근에, 몸체의 골격은 디플로도쿠스(Diplodocus)에 속하고, 두개골은 아파토사우루스(Apatosaurus)의 것임이 밝혀졌다.

공룡과 성경 많은 이들이 공룡 같은 동물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놀란다. 욥기 40 장에는 이 동물들 중의 하나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욥기는 매우 오래된 책으로,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혹은 대홍수 직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기 동물 중에서 가장 커다랗다고 설명하며, 성경에서는 ‘거대한 짐승’이라는 뜻의 ‘베헤모스’로 이 동물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묘사는 분명히 디플로도쿠스(Diplodocus)나 아파토사우루스(Apatosaurus)와 같은 커다란 용각류에 대한 묘사와 들어맞는다.

베헤모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에 주목하라.

커다란 풀 먹는 동물이었고

힘센 근육과 엄청나게 강한 뼈가 있었으며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커다란 백향목처럼 큰 꼬리를 가졌으며

습지에서 쉬는데, 범람하는 강물에도 놀라지 않으며

뗏으로 잡거나 길들일 수 없다

공룡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지기 전에, 성경을 연구하던 초기 학자들은 욥기의 베헤모스를 당시의 경험에 기초해서 확인하고자 노력했다. 최선의 후보가 코끼리나 하마였지만, 둘 다 성경의 묘사, 특히 꼬리 부분에 대한 묘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공룡에 대한 사실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다른 예로는, 단단해진 이암(퇴적암) 내에 공룡 화석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과, 골격 화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퇴적물이 서서히 덮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대홍수와 같은) 빠른 매몰의 결과라는 사실이 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또 다른 영역은, 많은 고대 문화의 전설 속에 (소위 ‘용’으로 불렸던) 공룡 같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대에 공룡 같은 동물과 때때로 마주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실천 사항 (A CALL TO ACTION)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커다란 공룡 속임수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할 위치에 있다. 여기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일부 목록이 있다.

책, 영화,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활동책(Activity Books)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왜곡된 진화론적 신념이 아니라, 공룡과 역사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공룡 자료를 제공하라. 아이들의 공룡에 대한 자연스런 호기심을 창조주께로 향하도록 사용하라!

이야기시간 공룡을 창조, 노아, 그리고 방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라.

학교 크리스천 교사들은 공룡을 창조, 타락, 대홍수, 지질학과 환경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에 넣어라.

도서관 창조론 책자를 도서관에 기증하라. 크리스천 학교 도서관과 교회가 크리스천들에 대해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장소이므로, 그곳에서 먼저 시작하라.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룡에 대해서 결코 듣지 않는 장소가 교회다.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창조론과 성경, 그리고 공룡이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모임 가족을 위한 저녁 모임, 한 주 동안 지속되는 모임이나 특별한 ‘공룡의 밤’처럼 이 모든 것들은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많은 창조 연사들이 기꺼이 돕는다.

서점 여러분의 지역 기독교서점에, 특히 현재와 같은 공룡 열풍이 부는 동안, 다른 창조지향적인 책과 시청각자료뿐만 아니라, 공룡에 관한 *기독교적* 자료도 판매하도록 권장하라.

결론 (CONCLUSION)



크리스천들은 **너무 늦기 전에** 공룡 열풍이 제공하는 독특한 기회를 이용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지금** 공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이다. 각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창조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공룡도 이러한 것을 하도록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 **창조**

창조단상 (18) 성경은 운석을 언급하고 있는가?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jpark@kyungpook.ac.kr)



성경은 운석을 언급하고 있는가?

얼음, 먼지, 암석 등으로 구성되어서, 태양을 초점으로 궤도 운행하는 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혜성으로는 76년 주기를 가지는 핼리 혜성(Halley Comet)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성과 더불어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하면서 지구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별뚝뚝로 불리는 유성(meteor)이나 지표면에 떨어진 운석(meteorite)으로 남게 됩니다.

운석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1803년의 일입니다. 이 암석이 지구상의 평범한 돌이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불과 200년 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3300년 정도 이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며 특수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시매...(that the LORD cast down great stones from heaven upon them unto Azekah..-KJV)”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덩이우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성경에 보시면 great stone(거대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아니라 거대한 '바윗돌'을 주님께서 떨어뜨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에벤'을 떨어뜨려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은 '바위' 혹은 '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에 우박은 '에벤'을 쓰지 않고 '바라드'라는 말을 씁니다. '우박'과 '돌'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번역가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우박 말고 뭐 있겠냐"하고 오해하여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관찰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지만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운석의 존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에 관한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관해서 기록하셨으니 당연히 가장 정확한 기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인도 지방에서 지름이 1미터 이상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지름이 15cm 내외 되는 큰 우박이 경북 내륙지방에 떨어져 농작물과 가축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